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정 은 영[†]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과보호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중, 고등학생 100명에게 개방형 질문지 형식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분류하여 예비척도의 일부문항을 구성하고, 기존의 양육태도 질문지 중에서 과보호와 관련된 문항들을 일부 활용하였으며, 문헌고찰과 사례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들을 추가하여 이를 전부 종합한 후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총 107문항의 예비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를 가지고 서울과 경기지역에 재학하고 있는 중,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과보호의 구성요인으로 과잉기대, 자율성 저해, 과잉통제, 과잉보호 및 불안, 과잉애정의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별로 5개 문항씩 최종 25개 문항으로 과보호 척도를 완성하였다. 척도의 5개 요인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척도의 타당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주요어 : 과잉보호, 과잉기대, 과잉애정, 과잉통제, 자율성 저해

[†] 교신저자 : 정은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48-21 해든숲 305호
Tel : 02-391-2938, E-mail : eychung77@hanmir.com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 방식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의 문제 행동과 정신 병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Barber, 1996; Baumrind, 1991; Benedek, 1970; Bowen, 1966; Kretchmar & Jacobvitz, 2002; Rey & Plapp, 1990; Schaefer & Bayley, 1959). 그동안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온 것은 학대나 무관심이지만, 그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보호이다. 과보호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립된 개념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Symonds(1939)는 과보호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자녀의 일상생활, 건강, 교우관계, 진로 등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부담감을 주고 일일이 간섭하고 도와주며 보호하는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의 특별하고 지나친 관심을 받고 양육되며,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특유의 부모 자녀 일체감으로 자녀에게 기대하고 자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심해 밀착된 모자관계를 이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공부를 위한 통제적 태도와 자녀와 밀착하는 수용적 태도가 결부됨으로써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형성된다(박아청, 1998).

과보호는 주로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나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보호를 받은 자녀들의 특성은 나약하고 의존적이며,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대인 관계에 문제가 많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자녀 위주의 생활은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를 유발하고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하여 심리적 부적응이나 우울이나 불안 같은 내재화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공격성이나 비행 같은 외재적 문제행동들과도 관련이 있다(김

혜영, 2000; 최경숙, 1997; Rey & Plapp, 1990). 이렇듯 아동 발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보호적 양육 방식의 폐해는 한 개인이나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과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김춘경, 2000).

외국에서도 과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자녀관계의 일환으로 연구되어져 왔으나(Adler, 1958; Holmbeck, 2002; Hurlock, 1978; Mackinaw-Koons & Barbara, 2001; Nelson & Erwin, 2000; Thomasgard & Metz, 1993), Parker (1979)의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이하에서는 PBI로 약칭함)가 개발된 이후 과보호와 정신병리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Parker, 1979a; Parker & Lipscombe, 1979). PBI는 돌봄(Maternal 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의 두 차원을 측정하는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로서 국내에서도 번안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 PBI는 정신질환자들의 부모에게서 과보호 특성이 많이 발견됨에 따라 개발된 척도로 주로 정신병리와 관련된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PBI를 사용한 외국의 과보호 관련 연구들의 대부분이 정신병리와 과보호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성인의 반사회적 성격은 어머니의 과보호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Reti, Samuels, Eaton, Bienvenu, Costa Jr, & Nestadt, 2002)이외에도 과보호는 아동의 불안 신경증과 관련 있다는 연구(Damian, 2006), 자살을 기도했던 청소년 신경증 환자들의 부모들이 과보호적 양육을 했다고 보고한 연구(Matin & Waite, 1994)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특별히 과보호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은 거의 없고, 과보호는 대부분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으로서만 연구되

어져 왔다(김재은, 1974; 박성연, 1989; 오기선, 1965; 이원영, 1983; 허묘연, 2000). 과보호만을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없어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부분으로 측정되는 정도에 불과했다.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대나 방임, 비밀관성 등 각종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과보호를 양육태도의 요인으로 포함한 척도 또한 많지 않은 상태여서 본 연구에서 일부 문항을 추출한 양육태도 척도들이 그나마 과보호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과보호 연구들은 그동안 과보호에 관한 적절한 측정도구가 없기 때문에 PBI를 사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내재적, 외재적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김경미, 2002; 문유선, 김도현, 2001; 소연주, 2001;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최경숙, 1997). 다만 국내에서 과보호연구를 위한 적절한 측정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정채숙(2002)이 과보호와 자아 존중감 연구를 위해 과보호 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한 바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인 양육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던 과보호를 중점적으로 특화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과보호를 양육태도의 일부로만 측정하기에는 문항수도 적고 과보호의 다양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현상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과보호를 양육태도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또한 국내 학자들이 대부분 사용해온 PBI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봄(Maternal Care) 12문항

과 과보호(Overprotection) 13문항으로 분류하여 측정하는데, 질문들이 추상적이며 번안해서 사용하는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우리 문화의 특유한 과보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예를 들면 PBI는 모호하고 간접적으로 묘사된 과보호 문항들이 광범위하게 내포되어 있어 과보호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송지영(1992)이 Parker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검사를 요인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과보호 문항은 두 문항이고, 나머지는 애정 문항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자율과의존성, 간섭을 내포하는 문항들이므로 과보호만을 면밀히 측정하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특유한 현상인 과도한 교육열에 따른 부모의 과잉기대나 부모자녀 동일체감 같은 개념을 내포하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에는 더욱 불충분하다.

이처럼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 보완해서 사용할 때 문화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 차이가 있는 개념을 측정하는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이원영, 1983),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 가족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이숙, 1988) 한국의 특수성에 맞는 다차원적인 과보호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과보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과보호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정채숙(2002)의 연구가 과보호 질문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였으나 과보호를 통제차원에서만 측정하였고, 과보호 척도로 사용하

기에는 타당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허묘연(2000)의 연구도 부분적으로나마 과보호를 양육태도의 한 요인으로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종합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하는데 주안점이 있어 과보호를 집중 조명하고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과보호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과보호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본 연구는 Levy와 Parker의 개념들을 토대로 과보호 연구를 보다 확대 발전시키고, 과보호에 관한 국내의 일부 연구 중 활용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과보호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Levy(1970)는 정신 질환자들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이의 출생 후부터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분리 불안으로 과보호를 하게 된다고 밝히고, 과보호를 1) 지나친 접촉, 2) 유아 취급, 3) 독립적 행동 저해, 4) 지나치거나 부족한 통제로 구분하였다. 과보호 어머니는 지배적이면서도 아이가 제멋대로 하게 허용하고, 출생 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애기 취급하고,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나 위험한 놀이 등 사회적 활동을 제재함으로써 아이를 위축시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Levy, 1966). Parker(1983)는 과보호의 구성 요소를 통제, 간섭, 의존성 조장, 외부의 영향 배제 등으로 제시하고, 아이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지나친 통제를 과보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았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Levy와 Parker

의 개념들을 토대로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제작에 목표를 두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100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구체적인 과보호 행동들에 관한 문항들을 수집하였고, 양육태도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기존의 양육태도 척도 중에서 과보호 문항들을 수집하였으며, 상담과 임상현장에서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을 토대로 연구자가 문항들을 개발한 후 이 모든 문항들을 종합 정리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물론 어머니에 대한 상세한 면접이나 관찰 자료를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데는 부모 자신의 보고자료 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의들도 있고(Kagan, 1971), 현실적으로 자료 수집의 문제점 등도 있다. 일찍이 Schaefer(1965)는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지각이 자녀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고, Kagan(1971)도 부모의 태도는 대개의 경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으로 반영되므로 행동으로 묘사된 진술문을 통하여 측정해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자의 방법론은 이러한 이론적 측면과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현실이 핵가족과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면서 양육과 교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이전에 비해서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양육의 책임은 어머니가 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Perris(1980)의 연구에서도 EMBU(부모의 양육태도를 기억하여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

여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과잉보호하고 간섭한다고 밝힌바 있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녀의 정신병리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는 바(오동재 등, 1993; 이현만, 한성희, 1996),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과보호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1. 탐색적 요인 분석

연구 대상 및 절차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재학 중인 중학생과 고등학생(만12-19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과보호 예비 척도를 담임선생님께 설명한 후 수업 시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2007년 10월 1일부터 30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자료 497부(남자 254명, 여자 241명, 결측치 2명)중 불

성실한 응답자 80부를 제외한 417부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 제작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예비 척도’는 총 10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보호를 측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항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과보호와 관련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 학교 장면이나 상담 장면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청소년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문항들을 토대로 과보호 척도 예비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그 과정은 먼저 한국 청소년들이 부모의 과보호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남녀 중, 고등학생 100명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배포하여, 그들은 과보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보호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 기분이 어떤지, 어떨 때 부모님이 과보호한다고 생각되는지 등을 물어 보았다. 그들의 반응을 정리하여 심리학과 교수 및 전문가 집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성별		나이		자녀수	
남	254명(51.1%)	만 12~13세	136명(27.4%)	외동이	60명(12.1%)
여	241명(48.5%)	만 14~15세	160명(32.2%)	기타	435명(87.5%)
		만 16~17세	139명(28.0%)		
		만 18~19세	61명(12.3%)		
결측치	2명	결측치	1명	결측치	2명
부모와의 동거여부		어머니 직업유무		어머니 학력	
동거	479명(96.4%)	전업주부	225명(45.3%)	대졸이상	247명(49.7%)
비동거	15명(3.0%)	비전업주부	191명(38.4%)	고졸	191명(38.4%)
				기타	38명(7.6%)
결측치	3명	결측치	81명	결측치	21명

단의 검토를 거쳐 일부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다. 학생들의 반응들은 대체로 부모의 간섭과 통제 그리고 부모의 과잉기대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Schaefer(1965)의 양육태도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Parker(1979)의 부모 자녀 결합형태 검사를 참조하고, 문헌조사 결과 기존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에서 과보호에 관련된 문항들을 추출하여 일부 수정하고,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들을 추가하여 총 107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즉 오기선(1965)의 ‘아버이와 자녀관계 진단검사’와 허묘연(2000)의 부모양육 행동척도에서는 과잉기대, 통제, 과잉보호 문항들을 추출하고, 정채숙(2002)의 과보호 질문지 중에서는 통제에 관한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문항 구성은 표 2의 예비문항개발 구성표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분석 방법

요인분석의 방법으로는 통계 패키지 SPSS 13.0으로 먼저 varimax 방식의 직각회전을 사용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분석으로 요인 부하량 0.4 이상인 문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출한 후 그 문항들 가운데 각 문항 간 상관을 검토하여 0.8 이상인 문항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추출된 요인 구조의 해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변량만을 사용하는 공통 요인분석에서 단일주축분해법을 지정하였으며, SPSS에서의 공통변량 초기값은 다중상관제곱치(SMC)로 지정되어있다. 요인의 회전방식은 각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사각회전에서 oblimin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하량이 여러 요인에 걸쳐 높게 나타나거나 어떤 요인에도 낮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

표 2. 예비문항 개발 구성표

	과잉기대	과잉통제/과잉간섭	과잉애정/과잉보호	
허묘연	13, 20, 29, 39, 83	87, 88, 92	2, 5, 10, 37, 52	13
정채숙		18, 28, 35, 47, 51, 65, 66, 71, 80, 82, 86, 89, 107		13
오기선	93, 102	27, 34, 81, 85, 90,	3, 12, 16, 33, 46, 49, 94,	14
김혜영		103		1
연구자	9, 14, 22, 41, 45, 76, 79, 84,	7, 40, 42, 43, 44, 54, 55, 105	15, 17, 23, 24, 25, 26 30, 31, 32, 36, 38, 59, 60, 63, 64, 69, 72, 74, 75, 91, 96, 97, 104	39
학생들 반응	8. 11. 19. 21. 70. 73. 95	1, 6, 48, 50, 53, 56, 57, 58, 61, 62, 67, 68, 78, 98, 99, 100, 101,	4, 77, 106	27
				총합
	22	47	38	107

(진한 숫자는 최종 문항 번호임)

항들 및 본래 의도했던 요인과 다르게 묶여 해석 가능성이 낮은 문항들은 제거되었다.

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값은 0.911으로 0.8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매우 적합함을 보여주며, Bartlett의 유의도 검증은 유의수준 $p=0.000$ 으로 요인구조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좋은 자료임을 알 수 있다.

고유치의 현저한 차이는 2번 요인과 5번 요인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분산비율은 5번 요인에서 90%에 도달하고 있다. 각 요인의 고유치와 scree plot, 분산비율 및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3개, 4개, 5개의 요인모형에 대하여 최종 해를 구하여 해석해 보았다. 보다 요인구조가 안정적이고 해석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선택하고자 하여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5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제 1요인 문항들은 과잉기대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에 대한 내용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능력과 학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 요인은 “과잉기대”라고 명명하였다. 0.5이상의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alpha = 0.81$ 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제 2요인 문항들은 지나친 부모의 도움행동으로 인한 의존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의 자율성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자율성 저해”라고 명명하였다. 0.6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alpha = 0.85$ 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제 3요인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간섭 및 통제에 관련된 문항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잉통제”라고 명명하였다. 0.6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신뢰도 결과는 $\alpha = 0.78$ 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제 4요인은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한 불안에 관한 문항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나친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과잉보호 및 불안”이라고 명명하였다. 0.5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신뢰도 결

표 3. 부모의 과보호 고유치

요인	1	2	3	4	5	6
고유치	20.01	6.37	4.62	3.74	2.96	2.25
차이	13.64	1.75	0.88	0.78	0.71	0.21
분산비율	0.51	0.14	0.10	0.08	0.06	0.06
누적분산비율	0.51	0.65	0.75	0.83	0.90	0.91

표 4. 요인별 신뢰도 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Crobach α	0.81	0.85	0.78	0.83	0.65

표 5. 부모의 과보호 요인 평균, 표준편차 및 요인간 상관(N=417)

요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과잉 기대	18.35	5.10	-				
2. 자율성저해	11.47	3.86	0.32	-			
3. 과잉 통제	17.35	4.68	0.50	0.39	-		
4. 과잉보호 및 불안	16.09	4.53	0.39	0.41	0.51	-	
5. 과잉 애정	14.50	3.35	0.27	0.30	0.32	0.46	-

과는 $\alpha = 0.83$ 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5요인은 자녀에 대해 느끼는 지나친 관심과 애정에 관한 문항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측면으로 “과잉 애정”이라고 명명하였다. 0.65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0.65$ 로 조금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지만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모든 문항들이 0.5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도 $\alpha = 0.65$ 이상으로 각 요인들에 대한 측정척도가 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5에 제시된 부모의 과보호 요인들의 척도 간 상관은 $r = 0.27$ 에서 $r = 0.51$ 로 요인들 간 서로서로 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과보호에 대한 측정문항은 탐색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총 25문항으로 제작되었다. 5요인은 과잉기대, 자율성 저해, 과잉통제, 과잉보호 및 불안, 과잉애정으로 각 요인별 5개 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들은 모두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에서 자신의 경우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다소 그렇다)까지로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개발한 과보호 척도의 5요인 구조가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부모의 과보호 척도에 관한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므로 과보호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

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12-19세)로서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346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16부(남자 138명, 여자 177명, 결측치 1명)를 사용하여 부모의 과보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과보호 요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 8을 이용하였다.

표 6. 부모의 과잉보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계수
과잉기대 (5문항)	35. 내 성적이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면 너무 실망하신다	0.739
	39. 내 능력이상으로 기대하셔서 부담스럽다	0.698
	13. 다른 어떤 것보다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0.615
	20.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남보다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0.584
	19. 우리 어머니는 나의 진로에 대해 나보다 더 민감하신다	0.553
자율성 저해 (5문항)	62. 내가 이성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어머니가 따라 오신다	0.692
	69. 내가 남들과 다투면 무조건 다른 아이를 야단치신다	0.763
	68. 내가 잘못했는데도 학교에 전화해서 따지신다	0.658
	90. 내 과제를 대신 해 주신다	0.654
	105. 어머니가 내 스케줄을 다 짜고 관리하신다	0.647
과잉통제 (5문항)	99. 어머니 마음에 안드는 친구는 사귀지 못하게 하신다	0.665
	43. 내가 어디 있는지 수시로 전화하신다	0.655
	40.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머니 허락을 받기 원하신다	0.653
	44. 나의 귀가시간을 엄격히 관리하신다	0.650
	54.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내 생활에 너무 많이 간섭하신다	0.645
과잉보호 및 불안 (5문항)	10. 지나치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	0.646
	26. 내 곁에서 나를 보살펴 줘야만 한다고 생각하신다	0.627
	5.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0.611
	2. 내가 다 컸는데도 나를 얘기 취급하신다	0.596
	24. 내가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신다	0.570
과잉애정 (5문항)	3.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	0.516
	28. 어머니는 언제나 내 기분을 맞춰 주려고 애쓰신다	0.489
	12.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리한 것도 다 들어주신다	0.453
	31. 나 없이는 못살 것 같다고 종종 말씀하신다	0.448
	15. 나를 자주 껴안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귀찮을 때가 많다	0.439

분석 결과

형의 전반적 합치도를 표 8에 제시하였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의 과보호 측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모

값이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0.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

성별		나이		자녀수	
남	138명(43.7%)	만 12~13세	84명(26.6%)	외동이	43명(13.6%)
여	177명(56.0%)	만 14~15세	98명(31.0%)	기타	272명(86.1%)
		만 16~17세	96명(30.4%)		
		만 18~19세	37명(11.7%)		
결측치	1명	결측치	1명	결측치	1명
부모와의 동거여부		어머니 직업유무		어머니 학력	
동거	305명(96.5%)	전업주부	143명(45.3%)	대졸이상	159명(50.3%)
비동거	10명(3.2%)	비전업주부	128명(40.0%)	고졸	122명(38.6%)
				기타	25명(7.9%)
결측치	1명	결측치	45명	결측치	10명

표 8. 부모의 과보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들

합치도	χ^2	RMSEA	TLI(NNFI)	CFI	RMR
검증모형	224.0(df=169)	0.061	0.901	0.916	0.308

RMR값도 일반적으로 좋은 합치도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0.05(이순목, 200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표적인 합치도 지수들인 TTL, CFI, 값이 Bentler와 Bonet이 제시한 좋은 모형의 부합도 지수 기준인 0.90을 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척도가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평가하는 또 다른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t값이 유의수준 0.05(김계수, 2007)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이들 결과로써 부모의 과보호 척도가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0.4를 넘고 있으며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에서

도 예정만이 0.64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이 0.8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보호 결정요인 척도가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 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과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것은 과보호의 개념이나 측정 문제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과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과보호 현

표 9. 어머니의 과보호에 관한 경로계수들

요인	문항	경로 계수	t값	P값	문항 총점 상관	자기문항 제거시 α 계수
과잉 기대	1. 내 성적이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면 너무 실망하신다	0.49	9.63	0.000	0.61	0.89
	6. 내 능력이상으로 기대하셔서 부담스럽다	0.50	10.19	0.000	0.63	0.89
	11. 다른 어떤 것보다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0.77	15.87	0.000	0.78	0.88
	16.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남보다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0.61	13.31	0.000	0.74	0.892
	21. 우리 어머니는 나의 진로에 대해 나보다 더 민감하신다	0.63	12.68	0.000	0.70	0.894
$\alpha = 0.90$						
자율성 저해	2. 내가 이성친구 만나러 갈 때 어머니가 따라 오신다	0.69	10.85	0.000	0.62	0.86
	7. 내가 남들과 다르면 무조건 다른 아이를 야단치신다	0.85	14.14	0.000	0.73	0.85
	12. 내가 잘못 했는데도 학교에 전화해서 따지신다	0.73	11.85	0.000	0.63	0.86
	17. 내 과제를 대신 해 주신다	0.80	12.85	0.000	0.66	0.86
	22. 어머니가 내 스케줄을 다 짜고 관리하신다	0.88	15.09	0.000	0.72	0.85
$\alpha = 0.88$						
과잉 통제	3. 어머니 마음에 안드는 친구는 사귀지 못하게 하신다	0.80	14.31	0.000	0.72	0.88
	8. 내가 어디 있는지 수시로 전화하길 원하신다	0.62	12.35	0.000	0.64	0.89
	13. 내가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원하신다	0.80	15.41	0.000	0.71	0.88
	18. 나의 귀가시간을 엄격히 관리 하신다	0.81	15.8	0.000	0.78	0.87
	23.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내 생활에 너무 많이 간섭하신다	0.79	15.83	0.000	0.76	0.87
$\alpha = 0.86$						
과잉 보호 및 불안	4. 지나치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	0.54	12.41	0.000	0.64	0.81
	9. 내 곁에서 나를 보살펴 줘야만 한다고 생각하신다	0.50	12.19	0.000	0.63	0.81
	14.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0.50	10.98	0.000	0.60	0.82
	19. 내가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신다	0.64	15.00	0.000	0.75	0.79
	24. 내가 다 컸는데도 나를 애기 취급하신다	0.60	13.00	0.000	0.63	0.81
$\alpha = 0.84$						
과잉 애정	5.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	0.38	6.39	0.000	0.27	0.65
	10. 어머니는 언제나 내 기분을 맞춰 주려고 애쓰신다	0.51	11.1	0.000	0.58	0.50
	15. 나 없이는 못살 것 같다고 종종 말씀하신다	0.36	6.12	0.000	0.26	0.65
	20.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리한 것도 다 들어주신다	0.44	9.57	0.000	0.53	0.52
	25. 나를 자주 껴안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귀찮을 때가 많다	0.41	8.81	0.000	0.38	0.59
$\alpha =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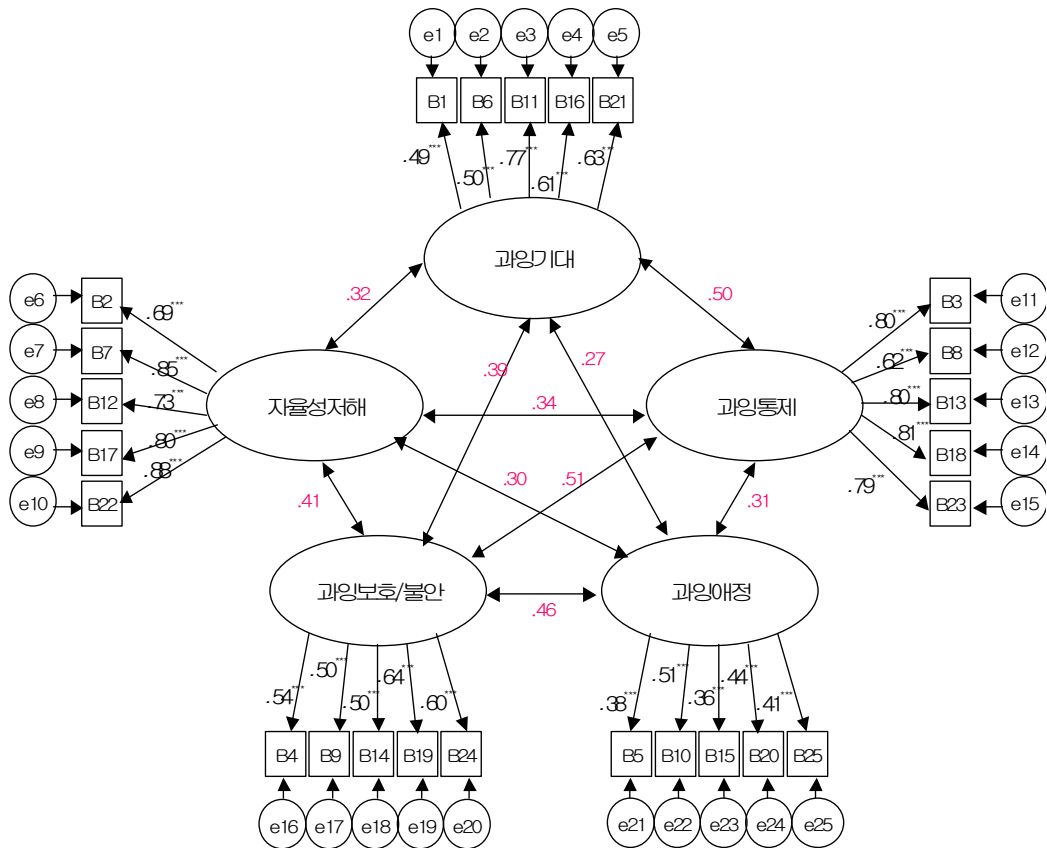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과보호 확인적 요인분석

상에 대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척도를 제작하였다. 현재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어머니의 과잉보호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수집하고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를 토대로 측정 문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존의 부모 양육태도 척도에서 일부 추출한 과보호 관련문항들과 문헌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들을 추가해서 이를 종합하여 총 107문항의 예비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 구성요인으로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5개의 요인으로는 과잉기대(5개 문

항), 자율성 저해(5개 문항), 과잉통제(5개 문항), 과잉보호 및 불안(5개 문항), 과잉애정(5개 문항)이 추출되어 총 25개 문항으로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보호 척도에서 과잉기대로 명명한 제 1요인은 총 5개 문항으로 주로 부모의 과잉 교육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를 뜻하는 문항들이다. 즉 과잉기대 요인은 예비 조사 결과 과보호의 개방형 질문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개념이다. 어떨 때 부모가 과보호한다고 느끼는지를 질문 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가 지나치게 기대하고 통제할 때라고 반응하고 그 비중이 높아서 본 척도에서는 과잉기대

를 과보호의 개념에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대신 성취하기를 바라는 경향과 우리나라의 출세지향적인 사회현상에 따른 부모들의 경쟁적인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외국척도의 과보호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다. 지금까지 과보호에 대한 개념이 지나친 보호와 간섭과 통제라는 개념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이라면 본 척도의 구성개념은 과잉 기대까지를 포함한 보다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과보호는 양육태도척도에서 하나의 하위요인으로만 취급되어져 왔고 과잉기대 또한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으로만 다루어져왔다. 심지어는 이들 개념이 아예 양육태도 척도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문제시되고 있는 과보호를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으로만 보거나 배제하는 것은 실증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위의 예비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과잉기대를 배제한 과잉보호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과잉기대와 과잉보호는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요인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많은 어머니들은 부모자녀 동일체감에 입각하여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자기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부모자신의 기대와 체면 때문에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자존감과 직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잉기대를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분리시키지 않고 이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빈도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과잉기대 문항 중 “내 성적이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면 너무 실망 하신다”는 질문에 그렇다(다소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4%이고, “내 능력이상으로 기대하셔서 부담스럽다”는 질문에 47.8%가

그렇다(다소 또는 매우)로 응답한 것을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율성 저해로 명명한 제 2요인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5개 문항들이고, 과잉통제로 명명한 제 3요인은 부모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내포하는 5개 문항들이다. 과잉보호 및 불안이라 명명한 제 4요인은 유아 취급하고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보호하고 돌봐주는 5개 문항들이며, 과잉애정이라 명명한 제 5요인은 부모의 지나친 접촉과 허용, 부모자녀 일체감을 내포하는 5개 문항들이다. 이들 요인들의 구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evy가 과보호를 독립적 행동 저해와 통제, 지나친 접촉, 유아취급으로 구분한 것과도 부합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를 대하는 특성을 파악해 보기 위해 본 검사의 빈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 5요인인 과잉애정 문항 중 “어머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제일 좋아 하신다”는 질문에 그렇다(다소 또는 매우)라고 응답한 비율이 46.1%이고, “언제나 내 기분을 맞춰 주려고 하신다”는 질문에 그렇다(다소 또는 매우)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가 되는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새로이 개발한 과보호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 만족할만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어 검사도구로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 보여주듯이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에서도 5개 요인 중에서 과잉애정 요인만 알파 계수가 0.64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여줄 뿐 나머지 과잉기대(0.90), 자율성 저해(0.88), 과잉통제

(0.86), 과잉보호 및 불안(0.84)요인들은 모두 0.8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타당도 분석 결과 비교적 양호한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이론적인 구성개념들이 다른 표본에서 어느 정도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적합도 검증을 통해 분석하는 절차이다. 표 8에서 보여주듯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검증 결과 모형이 전반적으로 분석 자료에 잘 맞는지를 알려주는 합치도들, 즉 RMSEA, RMR, CFI, NNFI들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나 검사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과보호 척도가 별도로 없었고 양육태도의 일부로서만 측정되어왔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부 활용한 기존의 부모양육태도 척도들은 대부분 여러 차원의 양육태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오기선의 부모자녀관계 진단 검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 지배, 보호 등 5개 요인으로, 허묘연의 부모양육행동 척도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애정, 거부, 학대, 방임, 과잉보호 등 10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에서 과보호차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고 보이는 일부 문항만을 본 연구에서는 추출하였다. 그러나 이들 척도들은 과보호를 특별히 비중을 두지 않고 단지 양육태도의 한 부분으로만 다루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보호 척도는 과보호의 개념을 확대하고 세분화시킨 가운데 과잉보호로 인한 문제점들을 집중분석하기 위해 과보호만을 중심으로 조명해 본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국내에서도 과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한 것으로는 정채숙

(2002)이 과보호 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과보호를 통제 측면에서만 다루었고 타당화 작업이 안 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과보호의 개념을 보다 새롭게 조명해보고 확장시켜 통제뿐만 아니라 과잉기대와 과잉애정 등 추가적인 개념들을 포함시켜 탐색적, 확인적 요인 분석을 거쳐 타당화 하였다라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검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직접 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그들의 과보호에 관한 생각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의 현상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외국에서는 주로 Parker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검사(PBI)로 과보호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척도를 PBI와 동일한 차원에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PBI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Parker는 임상현장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연구하여 과보호를 정신병리와 연관시켜 보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잉보호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어서 과보호를 정신병리와 연관시키기 보기보다는 양육태도의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Symonds의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보호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복잡적이며 발전적인(evolution) 개념이라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차원과 양육태도 차원을 모두 고려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요인들 중 과잉통제, 자율성 저해요인은 보다 양육태도와 관련된다고 보며, 과잉기대, 과잉보호 및 불안, 과잉애정 요인은 보다 심리적 차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Parker는 과보호를 크

게 두 가지 형태로 보고 (1) 애정이 결여된 통제 “affectionless control”를 정신 병리와 연관시켜 보았고 (2) 애정이 있는 통제 “affectionate constraint”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애정을 기저로 과잉기대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짙다.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이며 통제적이라는 국내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박은정, 1996; 이병래, 1991; 이원영, 1998). 이는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유의 부모자녀 일체감의 결과라고 보여 진다. 이렇듯 과보호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그 사회의 독특한 현상을 반영해야 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Parker(1981)도 실제로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녀의 기질보다는 문화적 요인이 과보호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 Parker(1981)의 척도는 과잉보호를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개념으로 측정하는 문항들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대부분 측정 가능한 행동을 묘사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것이 차이가 있으며 보다 발전된 척도라고 본다. 예를 들면 Parker의 PBI문항은 “어머니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문항은 “내 과제를 대신 해 주신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전화 하신다” 등 보다 측정하기 쉬운 구체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Parker의 PBI는 16세까지의 부모 양육태도를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형태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기억에 의존한 평가가 아니라 현재 자기 부모의 태도에 대한 평가이므로 왜곡되어

측정될 가능성이 적다. 즉 자녀의 주관적인 지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 보다는 자녀가 이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부모 자녀간의 객관적 관계성 보다는 이 관계성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Kohut, 1971, 1977).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이 검사의 결과가 반드시 정확한 부모자녀 관계양상을 보여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부모와의 후속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arker와 Lipscombe(1981)에 따르면 부모가 과보호한다고 지각한 자녀의 부모자신들도 스스로를 과보호한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 척도와 부모자신의 자기 보고형식의 과보호 측정도 함께 실시된다면 더욱 타당하고 개선된 측정이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심리 척도들과 함께 사용된다면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과보호만을 따로 취급한 척도가 없어 PBI와 같은 외국의 척도를 변안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사회현상과 문화를 반영하려고 과보호의 추상적 개념들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개념으로 구성된 척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양육태도 검사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져왔던 과보호 차원을 특화시켜 중점적으로 조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보호에 대한 적절한 척도 개발은 학교나 상담 현장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지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대한 적절한 측정과 평가는 부모 자신이 지각하지 못하는 양육 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는데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새롭게 설정한 구성 개념은 현시점에서 상정 가능한 다양한 과보호 측면을 포함하고자 한 것이나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보다 발전시킨 구성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요인들을 명명함에 있어서도 자율성 저해요인은 간접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과잉간섭으로 명명해도 무방하고, 과잉통제는 내용상 부모자녀간의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밀착통제라고 할 수도 있겠다. 또한 과잉보호 및 불안은 어머니의 불안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투사적 과보호로, 과잉애정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분리불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녀분리불안이라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요인분석 결과 요인들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나타났으나, 문항의 내용상 구성 요인을 세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과보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고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을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의 중, 고등학교에 한하여 조사하였는데 연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타당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함께 묶어 분석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분석뿐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분리해서 분석해 본다면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만의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아버지의 과보호 측정도 보완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른 심리척도들과의 관련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타당도 검증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02). 과보호적 양육 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 (2007). AMOS 7.0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집단 성격과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춘경 (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 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4(1), 35-49.
-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유선, 김도훈 (2001). 청소년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문제 행동의 연관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237-244.
- 박성연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2.
- 박은정 (1996).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의 양육태도 현황-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언주 (2001). 어머니의 분리 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

- 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 자녀 결합 형태 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92.
- 오기선 (1965). 어버이와 자녀관계 진단 검사요강. 서울: 코리안 테스트링센터.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 태도가 청년의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6), 896-903.
- 이병래 (1991). 결혼전 여성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목 (2000). 요인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 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영 (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 연구 논문집. 제 13호. 1-19.
- 이현만, 한성희(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7(2), 167-178.
- 정채숙 (2002).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 (1997).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에 대한 지각, 소속 욕구 및 공격성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ler, A. (1958).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New York: Capricor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 1-10.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enedek, T. (1970). Motherhood and nurturing. In E. J. Anthony & T. Benedek (Eds.), *Parenthood: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pp. 153-166). Boston: Little, Brown.
- Bowen, M. (1966).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Comprehensive Psychiatry*, 7, 345-374.
- Damian Mcnamara (2006). Parental overprotection may mediate anxiety in children. *Pediatric News*, 40(8), 34.
- Holmbeck, G. N., & Johnson, S, Z. (2002). Observed and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in Relation to Psychosocial adjustment in Preadolescents with a Physical Disability: The Mediation Role of Behavioral Autonom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96-110.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6th ed). New York: McGraw-Hill.
- Kagan, J. (1971). *Personality development*.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retchmar & Jacobvitz (2002). Observing mother-child relationships across generations: Boundary patterns, attachment, and the transmission of caregiving. *Family Process, 41*, 351-374.
- Levy, D. (1970). The concept of maternal overprotection. In E. J. Anthony & T. Benedek(Eds.), *Parenthood: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9*, 387-409. Boston: Little, Brown.
- Levy, D. (1966). *Maternal Overprotection*. W. W. Norton & Company, Inc.
- Mackinaw-Koons., & Barbara kay (2001). *Anxiety in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sex differences in parental overprotec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Ph.D.
- Matine, G., & Waite, S. (1994) Parental bonding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 suicid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89*, 246-254.
- Nelson, J. & Erwin, C. (2000). *Parents who love too much: How good parents can learn to love more wisely and develop children of character*. Prima Publishing.
- Parker, G., Hilary Tupling and L. B. Brown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arker, G. (1979a).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147
- Parker, G. & Lipscombe, P. (1979). Parental Overprotection and Asthma. *Journal of Psychosom Res, 23*, 295-299.
- Parker, G. & Lipscombe, P. (1981). Influence on maternal overprotec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8*, 303-311.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Grune & Stratton, Inc.
- Perris, C., Jacobson, L., Lindstrom, H., von Knorring & Perris, H. (1980), Development of a new inventory for assessing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61*, 265-274.
- Reti I. M., Samuels J. F., Eaton W. W., Bienvenu O. J., Costa P. T. JR, Nestadt G. (2002). Adult antisocial personality traits are associated with experiences of low parental care and maternal overprotection. *Acta Psychiatr Scand, 106*, 126-133.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 385.
- Schaefer, E. S., Bell, R. Q., &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ymonds, P. M.(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Thomasgard, M., & Metz, W. P. (1993). Parental Overprotection revisited.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4*, 67-80.

원고접수일 : 2008. 2. 27
수정원고접수일 : 2008. 4. 14
게재결정일 : 2008. 5. 9

The Development of an Overprotection Scale Based on Teenagers' Perception of Their Mothers

Eun-Young Chung

Sung-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ew overprotection scale that measures the degree of Korean mothers' overprotective attitudes in raising their teenage children, an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A preparatory scale of 107 questions was first produced and then applied to 5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five factors of overprotection which are listed as follows; excessive expectation, obstruction of autonomy, excessive control, overprotection and anxiety, and excessive affection. A final list of 25 questions, with 5 questions for each factor, were selected to complete the overprotection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erified the scale's validity and reliabilit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overprotection, excessive expectation, obstruction of autonomy, excessive control, excessive affection*

〈부록〉 과보호 척도의 최종문항 구조계수 행렬

문항번호	요인				
	1	2	3	4	5
35	0.739	0.207	0.293	0.205	0.182
39	0.698	0.258	0.270	0.281	0.152
13	0.615	0.253	0.423	0.382	0.219
20	0.584	0.217	0.286	0.391	0.134
19	0.553	0.223	0.268	0.239	0.088
69	0.191	0.763	0.284	0.397	0.20
62	0.198	0.692	0.343	0.209	0.158
68	0.346	0.658	0.332	0.137	0.129
90	0.204	0.654	0.340	0.242	0.188
105	0.231	0.647	0.241	0.125	0.157
99	0.367	0.344	0.665	0.094	0.245
43	0.296	0.277	0.655	0.334	0.195
40	0.355	0.421	0.653	0.316	0.394
44	0.363	0.394	0.650	0.276	0.439
54	0.224	0.130	0.645	0.280	0.230
10	0.236	0.281	0.176	0.646	0.292
26	0.305	0.201	0.311	0.627	0.393
5	0.286	0.145	0.271	0.611	0.261
2	0.446	0.193	0.480	0.596	0.153
24	0.409	0.337	0.533	0.570	0.222
3	0.172	0.193	0.274	0.319	0.516
28	0.101	0.337	0.202	0.191	0.489
12	0.212	0.198	0.249	0.101	0.453
31	0.286	0.046	0.216	0.179	0.448
15	0.083	0.205	0.186	0.183	0.439